폭설·혹한…얌체족 '활개'

폭설과 혹한에 시민의식까지 파묻혀 버린 것일까. 강추위로 기초질서 단속의 눈길이 느슨해진 틈을 탄 얌체족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눈이 내릴 때마다 택시 횡포때문에 귀갓길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가하면,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단속 경찰은 빙판길에서 구슬땀을 흘려야 했다.

택시 행선지는 기사 마음 합승은 기본…승차거부도

광주에 폭설이 내릴 때마다 서구 상무지구와 북구 용봉지구에서는 택시를 잡기 위한 '전쟁'이 흔한 일이다. 눈으로 발이 묶인 승객들을 상대로 일부 택시기사들이 '××동 가실 분'이라고 외치며 입맛에 맞는 승객들만 골라 태우는 등 승차거부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택시 기사들은 승객들에게 낯선 승객과의 합승을 강요하거나 목적지 도착 전에 하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상당수 승객들이 불쾌감을 느꼈지만 내리는 눈을 피해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기사들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회사원 강모(여·27)씨는 "1시간 가량 벌벌 떨며 기다린 끝에 겨우 택시를 탈 수 있었는데, 상당수 기사들이 마치 왕이라도 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택시에 타려고 하자 짜증섞인 목소리로 '머리와 옷에 쌓인 눈을 모두 털고 타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상했다"고 볼멘 표정이었다.

번호판·표지판 안보인다 신호위반·주정차 멋대로

광주지역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반은 해마다 겨울만 되면 두렵다. 일부 운전자들이 눈을 핑계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기 때문이다.

눈 덮인 황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에 일부러 차량을 세운 상당수 운전자들이 단속에 적발 된 뒤 '주차금지 구역인 줄 어떻게 아느냐'며 되레 화를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도 소용이 없다. "못 봤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경찰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차량 번호판이 눈으로 가려진 점을 노린 일부 운전자들이 무인단속카메라를 무시한 채 신호위반 또는 과속을 일삼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운전자들이 '미끄러져서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했는데 어쩌라는거냐'고 따지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남의 집 앞 눈더미위 쓰레기 등 몰래 버려

주부 박모(50)씨는 최근 자신의 집 앞에 놓인 쓰레기 봉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누군가 눈이 내리는 틈을 타 자신의 집 앞에 쌓인 눈더미 위에 몰래 쓰레기 봉지를 슬쩍 두고 간 것.

이 같은 현상은 박씨의 집 주변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밤새 눈이 내린 사이 동네 이곳저곳은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쓰레기들로 넘쳐났다.

눈이 그친 뒤에도 박씨는 또 한번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한 달 전 새로 구입한 승용차를 지난 밤 누군가 들이 받은 뒤 달아났기 때문이다. 박씨는 한 이웃으로부터 "파란색 화물차가 골목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뒤 황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박씨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더 이상 반갑지 않다"며 "남이 보지 않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음식점 위생점검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10일 한 음식점에서 간이 키트를 이용해 식중독균과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북국는 신종플루와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겨울등산 사고 주의보

저체온증 덕유산 1명 숨지고 무등산 1명 구조

최근 눈 덮인 겨울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면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에 오를수록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등산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향적봉(해발 1614m) 대피소 부근에서 김모(60)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에 있던 등산객이 발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후 1시께에는 광주 무등산 중머리재(해발 586m)에서 장불재(해발 900m)로 향하던 등산객 박모(여·51)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다행히 박씨는 무등산 장불재에서 산악구급함을 점검하던 소방사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구조됐다.

겨울산에서는 기상예보보다 체감온도가 더 떨어져 저체온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0m 올라갈 때마다 0.5~1도 가량 온도가 내려가며 체감온도는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영하 10도에서 바람이 초속 10m로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겨울산은 고도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고 날씨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등산화, 방한복 등 적절한 장비는 물론 여벌 옷과 장갑, 양말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겨울산의 경우 체감온도가 급격히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옷을 여러겹으로 따뜻하게 입고 산행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산행 출발 전 기본적으로 일기예보와 탐방로별 통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5·18 재단 이사장 3명 응모

5·18 기념재단은 10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0일간 이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한 결과, 최종 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모 지원자는 김준태 시인·김종배 전 국회의원·정동년 5·18 민중항쟁 30주년 행사위원장 등 3명이다. 6명으로 구성된 5·18 재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검증을 거친 뒤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인 이사회(14명)에 상정,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신종플루 환자 의식불명

순천서 40대 타미플루 복용

최근 신종플루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순천에서 신종플루 확진을 받고 치료중인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에 거주하는 박모(45)씨가 지난달 29일 기침증상으로 순천시내 한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은 결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뒤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순천시보건소 측은 박씨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가래와 기침증상으로 병원들을 전전하다 한 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을 받아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것으로 안다"며 "지난 3일 이 병원측으로부터 박씨가 신종플루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통보를 받고 전남도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임실군수 정치자금 의혹 수사 제보자 진술번복 종용 둘 구속

강완묵 임실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특수부는 10일 검찰 제보자에게 진술번복과 검찰 불출석을 종용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박모(43)씨와 강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최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모(43)씨〈광주일보 1월 6일 6면〉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등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구제역 소독약 뿌리자 운전자 행패

군산경찰 40대 영장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 지난달 25일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 도로 앞. 강모(46)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중 방역중이던 공무원(33)과 마주쳤다.

방역에 여념이 없던 공무원은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강씨의 차량에 소독기와 연결된 호스로 소독약을 뿌렸다. 당시 영하로 떨어진 기온 탓에 차량 앞 유리는 뿌옇게 얼어 붙었다. 이에 강씨는 공무원에게 "왜 소독약을 뿌려서 운전을 방해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소한 말싸움으로 끝났을 법한 상황은 더욱 격해졌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강씨가 차에서 내려 삽을 이용해 소독호스를 잘라버리고, 소독기를 내리치는 등 방역 현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 결국 소독기가 파손되고, 경찰이 오고나서야 상황은 마무리 됐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입힌 재산피해만 200만원에 이른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화순군체육회 50대 前 간부 수천만원 보조금 횡령 수사

광주북부경찰은 10일 화순군체육회 전직 간부인 정모(51)씨가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수차례에 걸쳐 유니폼 구입 대금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90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화순군청의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횡령 여부를 파악 중이다.

한편, 화순군체육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고추상자 사러 왔다 1000장 훔쳐

쌍나팔

○…농협창고에서 트럭을 이용해 몰래 종이상자를 훔친 50대 고추재배농이 경찰서행.

○…1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장모(58·나주시 대호동)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남구 한 농협 지점 창고에서 120만원 상당의 고추상자 1000장을 자신의 트럭에 실어 가져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나주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장씨는 이날 돈을 주고 고추상자를 구매하러 왔다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에서 "상자를 보관해 뒀다가 고추를 출하할 때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